

# 『素問·骨空論』의 “並少陰之經”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sup>1</sup> · 慶熙大學校 大學院 基礎韓醫科學科  
丁彰炫<sup>1,\*</sup>

## The Consideration about Follows Soeum Meridian[並少陰經] in 『Somun(素問)·Golgongron(骨空論)』

Jeong Chang-hyun<sup>1,\*</sup>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al Science,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In this thesis, we discuss on three theories about abdominal line of Penetration Meridian[衝脈] and focused on the text of several related chapters of 『Naegyeong(內經)』. Therefore, we can get the conclusion as follows.

Penetration Meridian[衝脈] is the same root of the Foot Soeum Meridian[足少陰經; KI, Kidney Meridian] and its circulation course is also at one with the Foot Soeum Meridian[足少陰經]. 『Naegyeong』 presents two kinds of channel of Penetration Meridian at the trunk portion—abdominal and dorsal channels. And their inter-relationship would be described as relationship between the roots[本] and the manifestation[標] or meridian[line] and acupoint[point].

Key Words : Penetration Meridian[衝脈], Foot Yangmyeong Meridian[足陽明經], Stomach Meridian, Foot Soeum Meridian[足少陰經], Kidney Meridian

### I. 서론

『素問·骨空論』에서 “충맥은 기가에서 일어나서 소음경을 따라 배꼽을 끼고 상행하여 흉중에 이르러 흩어진다(衝脈者, 起於氣街, 並少陰之經, 俠齊上行, 至胸中而散).”<sup>1)</sup>라고 하여, 충맥의 노선을 설명하고 있는데, “並少陰之經”의 “少陰”에 대하여 역대 의가의 논설이 분분하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소음이 맞다는 견해, 소음이 아니라 양명이라는 견해, 앞의

둘을 절충한 견해가 있다.

언뜻 이 논쟁이 아무 의미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이 문제는 소음경의 유주 노선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필자는 소음경의 유주에 대한 연구의 선행 연구로서 먼저 『素問·骨空論』의 “並少陰之經”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少陰經의 유주 노선 논란

현대 침구경락학에서 족소음신경의 유주 노선은

\* 교신저자 : 정창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전화 : 02)961-0337. E-mail : jeongch@khu.ac.kr

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09.

복부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sup>2)</sup> 하지만, 최근 이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임진석은 『素問·陰陽離合論』에 근거하여 족소음신경이 복부가 아닌 인체 후면 등쪽으로 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素問·陰陽離合論』 중 “少陰之上”, “太陰之前”, “厥陰之表”의 ‘上’, ‘前’, ‘表’를 모두 ‘出地者’란 말과 결부시켜 이들이 실제로는 신체의 표면을 의미하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前面에서 걸은 陽明, 속은 太陰이며, 뒷면에서 걸은 太陽, 속은 少陰이며, 측면에서 속은 厥陰, 걸은 少陰이다. 이로써 陽明-太陰, 太陽-少陰, 少陽-厥陰의 완전한 표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를 근거로 그는 족소음신경의 실제 구역은 등쪽이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임진석의 논문을 바탕으로 몸통 부위와 대퇴 부위의 三陰三陽 배치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족소음신경이 족태양방광경의 深部인 척추뼈 안쪽 깊숙한 곳을 따라 흐른다는 것을 논증했다.<sup>3)</sup>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少陰이 太陽의 기세에 눌려 뒤쪽 背部로 표출되지 못하고 앞쪽 腹部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만 간단히 언급하였을 뿐, 더 이상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sup>4)</sup> 중국의 황용상도 『중의침구학술사대강』에서 足少陰經이 원래 복부의 表로 행하지 않았고, 원래는 배부 첫째 줄이 족소음경의 노선이라고 주장하였다.<sup>5)</sup>

이러한 혼란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역대 경락도를 고찰해 보면, 족소음신경이背部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고, 腹部에 그려져 있는 것도 있다.<sup>6)</sup>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밝히기로 하고, 여기서는 관련 그림 몇 가지만 예시한다.(그림 17, 그림 28, 그림 39, 그림 410, 그림 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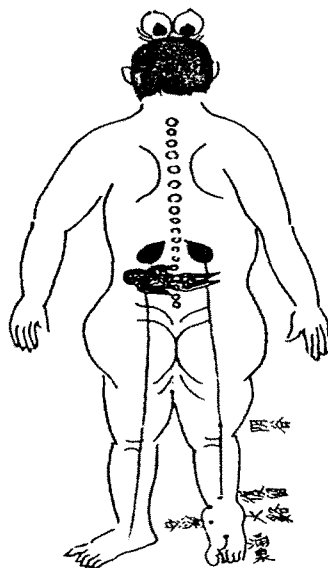


그림 1. 醫心方

2) 전국한의과대학 침구경락학교실 편저. 침구학(상). 서울. 집문당. 1991. p.533  
 3) 정창현. 삼음삼양의 개합추에 대한 신지견-“厥陰爲樞, 少陰爲合”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2). pp.275-279.  
 4) 정창현. 삼음삼양의 개합추에 대한 신지견-“厥陰爲樞, 少陰爲合”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2). pp.275-279.  
 5) 황용상 저. 박현국 외 2인 공역. 중국침구학술사대강.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429, 431.  
 6) 이러한 혼란에 대해서 손광락은 그의 논문(손광락. 經脈體系의 形成과 發展에 關한 文獻의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1999.)에서 현재의 경락체계는 『銅人』이 본보기이고(p.101.), 이후 『聖濟總錄』이나 『十四經發揮』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며(p.100.), 『동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甲乙·明堂』이 그 근원이고 『靈樞·經脈』편의 체계는 사용되지 않았다(p.86, 87.)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다면, 역대 경락체계는 『갑을』체계와 『경맥』편의 체계가 달랐다는 말이다.  
 7) 鄧良月 主編. 中國經絡文獻通監. 青島. 青島出版社. 1993. p.571.  
 8) 황용상저. 박현국 외 2인 공역. 중국침구학술사대강.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466.  
 9) 鄧良月 主編. 中國經絡文獻通監. 青島. 青島出版社. 1993. p.573  
 10) 鄧良月 主編. 中國經絡文獻通監. 青島. 青島出版社. 1993. p.572.  
 11) 鄧良月 主編. 中國經絡文獻通監. 青島. 青島出版社. 1993. p.575.



그림 2. 醫方類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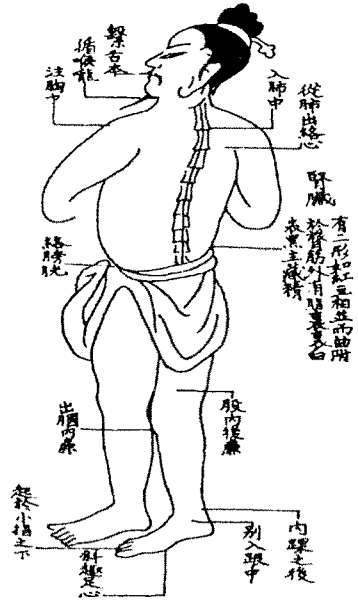


그림 4. 類證活人書



그림 3. 十四經發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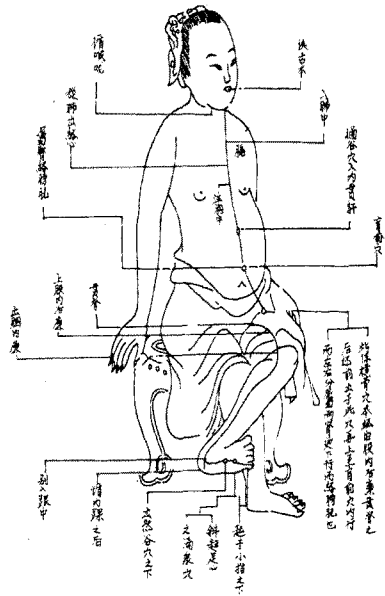


그림 5. 醫宗金鑑

足少陰腎經의 流注와 관련하여 『내경』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족소음경이 背部로 흐른다고 하였다.

『靈樞·經脈』편에 제시된 족소음신경의 몸통 부위 經路를 보면, 사타구니 안쪽 陰脛 부위를 관통하여 腹中으로 들어가 척추를 따라 올라가 腎과 膀胱에 연결되고, 다시 횡격막을 뚫고 흉부로 올라가 肺로 들어가고, 목구멍을 따라 올라가 혀뿌리에 이른다.<sup>12)</sup> 또 『靈樞·經筋』편을 보면, “허벅지를 타고 올라가 생식기에 맺힌다. 척추 안쪽을 따라 등뼈를 끼고 올라가 목덜미에 이르러 침골에 맺히고 족태양경근과 합한다.(循陰股, 結於陰器, 循脊內, 挾膂 上至項, 結於枕骨, 與足太陽之筋合.)”라고 하였다.<sup>13)</sup> 모두 족소음신경이 背部 안쪽으로 흐른다고 본 것이다.

『內經』이전 두 종의 十一脈灸經 중에도 마찬가지로 족소음신경의 복부 순행은 보이지 않는다. 『足臂十一脈灸經』에서는 “循脊內上乘”<sup>14)</sup>이라 하고, 또 『陰陽十一脈灸經』에서는 “上穿脊之內廉”<sup>15)</sup>이라 하여, 모두 척추뼈 안쪽을 따라 흐른다고 보았다. 『太素』역시 「경맥」편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sup>16)</sup> 이상의 내용을 보면 足少陰腎經은 당연히 腹部가 아닌 背部로 흘러야 한다. 그러나 현행 經絡유주는 이와 다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張景岳은 족소음경 복부 유주 노선의 근거가 『甲乙經』이며, 『甲乙經』은 다시 『소문·골공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건대, 족소음경은 본편과 「경별」, 「경근」 등의 편에서 모두 척추 안쪽을 따라 위로 심폐로 들어가 흉중에서 흘러진다고 했다. 오직 「골공론」에서만 총맥이 기가에서 일어나 소음경을 따라 배꼽을

키고 상행하여 흉중에 이르러 흘러진다고 했다. 따라서, 『갑을경』은 兪府, 或中, 神藏, 靈墟, 神封, 步廊 등의 穴에서는 모두 足少陰脈氣가 발하는 곳이라 했고, 幽門, 通谷, 陰都, 石關, 商曲, 肓俞, 中注, 四滿, 氣穴, 大赫, 橫骨 11 穴에서는 모두 衝脈과 足少陰이 만나는 곳이라고 했다. 그래서 활씨의 주가 이와 같은 것인데, 실은 『갑을경』, 『銅人』등에 근본한 것이다. 그러나 『갑을경』등도 실은 「골공론」에 근본한 것이다.(愚按, 足少陰一經, 考之本篇及經別經筋等篇, 皆言由脊裏, 上注心肺而散於胸中, 惟骨空論曰 衝脈者, 起於氣街, 並少陰之經, 挾齊上行, 至胸中而散, 故甲乙經於兪府, 或中, 神藏, 靈墟, 神封, 步廊等穴, 皆云足少陰脈氣所發, 幽門, 通谷, 陰都, 石關, 商曲, 肓俞, 中注, 四滿, 氣穴, 大赫, 橫骨十一穴, 皆云衝脈足少陰之會, 故滑氏之註如此, 實本於甲乙, 銅人諸書, 而甲乙等書, 實本之骨空論也.)<sup>17)</sup>

『甲乙經』을 살펴보면, 복부에 있는 幽門, 通谷, 陰都, 石關, 商曲, 肓俞, 中注, 四滿, 氣穴, 大赫, 橫骨을 모두 “衝脈, 少陰之會”<sup>18)</sup>라고 하였고, 흉부에 있는 兪府, 或中, 神藏, 靈墟, 神封, 步廊을 모두 “足少陰脈氣所發”<sup>19)</sup>이라고 하였다. 張景岳은 족소음신경의 노선이 현재의 형태로 정해진 것은 바로 『갑을경』의 이 부분과 『素問·骨空論』의 “並少陰之經, 挾齊上行”이란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황용상도 족소음신경유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素問·骨空論』의 “並少陰之經”에 대하여 『갑을』, 『난경』, 『태소』를 근거로 들어 “少陰”을 “陽明”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0)</sup> 그 역시 張景岳과 마찬가지로 족소음신경의 유주노선 문제가 “並少陰之經”구절과 연관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並少陰之經”구절은 經絡학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 족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81. “腎足少陰之脈, 起於小指之下, 邪走足心, 出於然谷之下, 循內踝之後, 別入跟中, 以上踰內, 出屬內廉, 上股內後廉, 貫脊, 屬腎, 絡膀胱. 其直者, 從腎上貫肝膈, 入肺中, 循喉嚨, 挾舌本.”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03.  
1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湖南.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193.  
1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湖南.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258.  
1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대성문화사. 1986. p.79.

17) 張介賓 저. 이남구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268.  
18) 山東中醫學院 校釋. 鍼灸甲乙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p.407-409.  
19) 山東中醫學院 校釋. 鍼灸甲乙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p.391-393.  
20) 황용상 저. 박현국의 2인 공역. 중국침구학술사대강. 서울. 법민문화사. 2005. p.426.

소음신경의 노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질병의 치료방면은 물론이고 연구방면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 2. “並少陰之經”에 대한 세 가지 견해

### 1) 並少陰經說

王冰은 『素問』의 「陰陽離合論」, 「腹中論」, 「奇病論」, 「大奇論」, 「脈解」, 「刺禁論」, 「氣府論」, 「骨空論」, 「水熱穴論」, 「調經論」 등 여러 편의 주석에서 줄곧 충맥이 소음경과 병행한다고 했다. 예로 「水熱穴論」을 살펴보면, “배꼽 양 옆을 끼는 것은 족소음신맥과 충맥의 기가 발하는 곳이며, 다시 그 양 옆은 족양명위맥의 기가 발하는 곳이다.(俠齊兩傍, 則腎藏足少陰脈及衝脈氣所發, 次兩傍, 則胃府足陽明脈氣所發.)”<sup>21)</sup> 라고 하여, 충맥이 족양명경이 아닌 족소음경과 병행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聖濟總錄』과 장경악의 『類經圖翼』에서도 衝脈이 腹部의 足少陰腎經과 병행한다고 인식했다.

『聖濟總錄·衝脈』卷192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衝脈은 氣衝에서 일어나 소음경을 따라 배꼽을 끼고 상행하여 흉중에 이르러 흩어진다. 이것이 병들면 기가 역상하고 속이 급하다. 『난경』에서는 ‘양명경을 따른다’고 했다. 穴을 가지고 본다면, 양명경은 배꼽을 끼고 좌우로 각각 2촌 떨어져 상행하며, 소음경은 배꼽을 끼고 좌우로 5푼 떨어져 상행한다. 『鍼經』에서 ‘충맥이 독맥과 함께 會陰(전음과 후음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복부에서 충맥이 幽門, 通谷, 陰都, 石關, 商曲, 肓腧, 中注, 四滿, 氣穴, 大赫, 橫骨 총 22혈을 행한다’고 했는데, 모두가 족소음경에 속한다. 따라서 충맥이 족소음경을 따르는 것이 분명하다.(衝脈者, 起於氣衝, 並少陰之經, 俠臍上行, 至胸中而散, 此爲病, 令人逆氣裏急, 在難經則曰並足陽明之經. 以穴考之, 陽明之經俠臍左右各二寸而上行, 少陰之經俠臍左右各五分而上. 鍼經所載衝脈與督脈同

起於會陰(二陰之間也), 其在腹也, 行乎幽門, 通谷, 陰都, 石關, 商曲, 肓腧, 中注, 四滿, 氣穴, 大赫, 橫骨, 凡二十二穴, 皆足少陰之分也, 然則衝脈並足少陰之經明矣.)”<sup>22)</sup>

『난경』에서 충맥이 “양명경”과 병행한다고 했지만, 穴을 가지고 본다면 결국 족소음경과 병행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穴은 곧 『甲乙經』에서 제시한 “衝脈, 少陰之會”를 말한다. 결국, 『聖濟總錄』은 『甲乙經』을 따른 것이다. 『十四經發揮』도 이상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장경악은 『類經圖翼·經絡』에서 다음과 같이 논술하였다.

“衝脈은 氣衝에서 일어나 소음경을 따라 배꼽을 끼고 상행하여 흉중에 이르러 흩어진다. 이것이 병들면 기가 역상하고 속이 급하다. 또 『난경』에서는 ‘양명경을 따라 상행한다’고 했다. 穴을 가지고 본다면, 족양명경은 배꼽을 끼고 좌우 각각 2촌 떨어져 상행하며, 족소음경은 배꼽을 끼고 좌우로 5푼 떨어져 상행한다. 『감을경』, 『동인』등에서는 幽門, 通谷, 陰都, 石關, 商曲, 肓腧, 中注, 四滿, 氣穴, 大赫, 橫骨 총 22혈이 모두 충맥과 족소음맥이 만나는 곳이라고 했는데, 모두 『골공론』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충맥이 족소음경을 따르는 것이 분명하다.(衝脈者, 起於氣衝, 並足少陰之經, 俠臍上行, 至胸中而散, 此爲病, 令人逆氣裏急, 又難經曰並足陽明之經上行, 以穴考之, 足陽明之經俠臍左右各二寸而上行, 足少陰之經俠臍左右各五分而上行. 按甲乙, 銅人等書, 所載幽門, 通谷, 陰都, 石關, 商曲, 肓腧, 中注, 四滿, 氣穴, 大赫, 橫骨, 凡二十二穴, 皆云衝脈足少陰之會, 皆以骨空論爲之主也, 然則衝脈並足少陰經也明矣.)”

이는 『聖濟總錄』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그 역시 충맥이 족소음과 병행하는 근거로 『甲乙經』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감을경』의 내용이 『素問·骨空論』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점이 다를 뿐이다.

또 장경악은 『類經·經絡類』중의 『素問·骨空論』대

21) 林億, 高保衡,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27.

22) 趙估 編,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184.

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논술하였다.

“衝脈은 氣衝에서 일어나 족소음경을 따라 횡골, 대혈 등 11혈에서 모이며, 배꼽을 끼고 상행하여 흉중에 이르러 흩어진다. 이것은 충맥이 인체의 앞쪽으로 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음맥은 허벅지 안쪽 후방으로 올라가 척추를 관통하여 신에 속한다. 충맥 역시 척추 안쪽으로 들어가 복충맥이 된다. 따라서 충맥이 인체의 뒤쪽으로 운행하는 것도 소음경을 따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衝脈, 起於氣衝, 並足少陰之經, 會於橫骨大棘等十一穴, 俠臍上行, 至胸中而散, 此言衝脈之前行者也。然少陰之脈, 上股內後廉, 貫脊屬腎, 衝脈亦入脊內, 爲伏衝之脈, 然則衝脈之後行者, 當亦並少陰無疑也。)”<sup>23)</sup>

그는 충맥에는 인체 복부로 흐르는 前行者와 척추 안쪽을 따라 흐르는 後行者가 있는데, 둘 다 족소음 신경과 병행한다고 주장했다.

## 2) 並陽明經說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難經』, 『甲乙經』, 『太素』, 『素問·骨空論』의 新校正, 『素問·痿論』을 근거로 들고 있다.

현대 중의학자 鄧良月은 『中國經絡文獻通監』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本經의 복부 외행선에 대해 元代 이전 의서에는 명확한 기재가 없다. 현행본 『素問』과 『甲乙經』에는 비록 ‘衝脈者, 起於氣衝, 並少陰之經, 俠臍上行, 至胸中而散’이라고 되어 있지만, 楊上善은 이에 대해 ‘皇甫謐錄素問云: 衝脈起於氣衝, 並陽明之經’이라고 명확히 제시하였다. 「骨空論」의 신교정에서 『甲乙經』을 인용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難經』에서도 ‘並陽明之經’이라고 하였다. 또 현행 『素問·痿論』에서도 ‘衝脈者……與陽明合於宗筋……會於氣衝’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骨空論」중의 ‘並少陰之經’은 후인이 고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 같다. 足少陰經筋도 복부

부포에 대한 기록이 없다. 아울러 足太陰經과 足厥陰經의 經脈과 經筋의 순행부포도 元代 이전 醫書에는 마찬가지로 복부 외행선에 관한 기록이 없다. 이 문제는 진지하게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sup>24)</sup>

『難經·28難』에서 처음으로 “충맥은 기충에서 일어나 족양명경을 따라 배꼽을 끼고 상행하여 흉중에 이르러 흩어진다.(衝脈者, 起於氣衝, 並足陽明之經, 俠臍上行, 至胸中而散.)”<sup>25)</sup>라고 하였고, 이후 『甲乙經』과 『太素』, 新校正에서 모두 이를 따르고 있다.

『甲乙經·奇經八脈』을 살펴보면, 현행본<sup>26)</sup>에는 “並少陰之經”<sup>27)</sup>이라고 되어 있지만, 四庫全書本에는 “並少陰之經【難經作陽明之經】”<sup>28)</sup>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素問·骨空論』의 신교정에는 “按難經, 甲乙經, 作陽明”<sup>29)</sup>이라고 되어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並陽明經說의 근원은 결국 『難經』이다. 楊上善도 “皇甫謐錄素問云, ……並陽明之經, ……此是八十一難說.”<sup>30)</sup>이라고 하여 並陽明經說의 출처가 『難經』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衝脈의 복부순행노선에 대한 논쟁의 발미를 제공한 것이 『難經』임을 알 수 있다.

## 3) 절충과

후대로 가면서 많은 학자들이 並少陰經說과 並陽明經說을 절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虞庶는 『難經·28難』에 대한 注에서 충맥이 陽明經과 少陰經의 사이를 흐른다고 보았다.

24) 鄧良月 주편. 中國經絡文獻通監. 中國 青島. 青島出版社. 1993. p.568.

25) 윤창열, 김용진 편저. 난경연구집성.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532.

26) 山東中醫學院 校釋. 鍼灸甲乙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27) 山東中醫學院 校釋. 鍼灸甲乙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257.

28) 皇甫謐 撰. 黃帝鍼灸甲乙經(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五).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544.

29) 林億, 高保衡.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19.

30)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대성문화사. 1986. p.115.

23) 張介賓 저. 이남구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356.

“『소문』에서는 ‘충맥이 족소음경을 따른다’고 했고, 『난경』에서는 ‘족양명경을 따른다’고 했다. 소음경은 배꼽을 끼고 좌우로 각각 5푼 떨어져 있고, 양명경은 배꼽을 끼고 좌우로 각각 2촌 떨어져 있으며, 氣衝은 양명맥의 기가 발하는 곳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충맥은 기충에서 일어나 양명과 소음 두 경의 사이에서 배꼽을 끼고 상행한다.(素問曰衝脈並足少陰之經, 難經却言並足陽明之經, 況少陰之經俠臍左右各五分, 陽明之經俠臍左右各二寸, 氣衝又是陽明脈氣所發. 如此推之, 則衝脈自氣衝起, 在陽明少陰二經之內, 俠臍上行.)”<sup>31)</sup>

이시진도 『奇經八脈考·衝脈』에서 衝脈이 양명경과 소음경의 사이를 흐른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충맥이 지나가는 노선은 배꼽에 좌우로 5푼 떨어진 족소음경을 따르고 있다.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충맥은 經脈之海이며 또한 血海라고도 한다. 충맥은 임맥과 함께 모두 아랫배의 胞中에서 일어난다. 그 중 떠서 체표로 나온 것은 기충에서 일어나 족양명경과 족소음경의 사이를 따라 복부를 타고 상행하여 橫骨에 이르면, 배꼽을 끼고 좌우 각각 5푼 떨어져 위로 大赫, 氣穴…… 幽門을 행하여 흉중에 이르러 흩어진다. 모두 24혈이다.(衝脈爲經脈之海, 又曰血海, 其脈與任脈, 皆起於少腹之內胞中, 其浮而外者, 起於氣衝, 並足陽明少陰二經之間, 循腹上行至橫骨, 俠臍左右各五分, 上行大赫, 氣穴, ……幽門, 至胸中而散, 凡二十四穴.)”<sup>32)</sup>

張志聰 역시 李時珍과 마찬가지로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충맥은 족양명경과 족소음경 두 경의 사이를 따라 복부를 타고 상행하는데, 배꼽을 끼고 좌우로 각각 5푼 떨어져 상행하여 흉중에 이르러 흩어진다.

…… 이는 충맥의 혈기가 맥외로 행하는 것이다.(衝脈並足陽明少陰二經之間, 循腹上行, 俠臍左右各五分, 上至胸中而散……此衝脈之血氣, 行於脈外也.)”<sup>33)</sup>

徐大椿은 『難經經釋』에서 『難經』에서 “並陽明之經”이라 한 것과는 다르게 『素問·骨空論』에서 “並少陰之經”이라 되어 있는데, 두 경맥이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충맥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sup>34)</sup>

滕萬卿의 『難經古義』에서는 충맥이 족소음에 속하지만 족양명경의 기충혈에서 發하므로 양명과 병행한다고 한 것은 ‘내경’이 밝히지 않은 것을 밝힌 것이라고 하였고, 소음과 양명 사이를 유주한다는 이론도 미묘하다고 하였다.<sup>35)</sup>

이밖에 丁德用은 『難經·28難』에 대한 注에서 충맥이 족양명과 임맥의 사이를 흐른다고 했다.<sup>36)</sup>

현대에 와서 이 절충설에 대해 또한 찬반양론이 엇갈리는데, 먼저 尹錫烈 등은 절충설을 다음과 같이 지지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古義』의 의견이 옳은 듯하다. 『素問·痿論』에 ‘陽明者, 五臟六腑之海’라고 하였고, 『靈樞·動輸』에 ‘胃爲五臟六腑之海’라고 하였으며, 『靈樞·逆順肥瘦』에 ‘衝脈者, 五臟六腑之海’라고 하였으니, 衝脈과 陽명이 얼마나 밀접한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衝脈은 五臟六腑之海 또는 十二經之海인데 腎은 先天을 주하고 胃는 後天을 주하므로 어느 것 하나만을 衝脈에 귀속시키는 것도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충맥은 족양명경과 족소음경과 모두 밀접하게 유주해야 한다고 해야겠다.”<sup>37)</sup>

31) 秦越人撰, 王九思等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p.164.

32) 李時珍著, 柳長華主編, 奇經八脈考, 李時珍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36.

33) 陳夢雷, 蔡廷錫等原編者, 圖書集成醫部全錄二 黃帝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79.

34) 徐大椿, 難經經釋(徐靈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22. “雖陽明與少陰經文互異, 然兩經不其相遠, 皆衝脈所過, 義無害也.”

35) 윤창열, 김용진 편저, 난경연구집성,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548.

36) 秦越人撰, 王九思等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pp.163-164. “衝脈起於氣衝, 并足陽明之內, 俠任脈之外, 上行至胸中而散, 皆起於兩間, 此者是三焦行氣之府也.”

37) 윤창열, 김용진 편저, 난경연구집성, 대전, 주민출판사,

이와 반대로 王洪圖 등은 “충맥이 소음과 양명 사 이로 흐른다는 설은 결코 따를 수 없으며, 경문의 소 음이나 양명 어느 하나에만 병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內經』의 충맥과 관련된 기타 문구를 보면, 충맥과 소음의 관계가 더욱 밀접한 것 같다. 따라서 그대로 소음과 함께 흐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38)</sup>라고 했다.

### Ⅲ. 고 찰

#### 1. 衝脈과 足少陰經

『내경』의 경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족소음경맥과 충맥의 유주가 기본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우선 『素問·陰陽離合論』에서는 “前曰廣明, 後曰太衝, 太衝之地, 名曰少陰”<sup>39)</sup>이라 하여 충맥이 소음 경에 뿌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靈樞·動輸』에서도 “衝脈者, 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 起於腎下.”<sup>40)</sup>라고 하여, 충맥이 소음경과 함께 腎下에서 기시한다고 했다. 이는 충맥과 소음의 근원이 같다고 본 것이다.

『素問·骨空論』에서 “衝脈者, 起於氣街, 並少陰之經, 俠齊上行, 至胸中而散.”<sup>41)</sup>라고 하여, 충맥이 복부에서는 소음경과 함께 흐른다고 했고, 『素問·氣府論』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충맥의 流注를 서술하고 있다.

“충맥의 기가 발하는 곳은 22혈이다. 구미혈 양 옆으로 각각 5푼씩 떨어져 배꼽까지 1촌 간격으로 위치한다. 또 배꼽 밑에서는 양 옆으로 각각 5푼씩 떨어져 횡골까지 1촌 간격으로 위치한다. 복맥법이다.(衝脈氣所發者, 二十二穴. 俠鳩尾外各半寸, 至齊一. 俠齊

下傍, 各五分, 至橫骨寸一, 腹脈法也.)”<sup>42)</sup>

이는 『甲乙經』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 충맥의 하지부의 순행 노선이 족음신경과 일치한다.

『素問·水熱穴論』: “이는 腎脈이 하행하는 것이니, 이름하여 태충이라 한다.(此腎脈之下行也, 名曰太衝.)”<sup>43)</sup>

『靈樞·動輸』: “충맥은 十二經之海로서 소음의 大絡과 함께 腎의 밑에서 기시한다.……소음경을 따라 아래로 內踝 뒤쪽으로 들어가 발바닥으로 들어간다.(衝脈者, 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 起於腎下…… 并少陰之經, 下入內踝之後, 入足下.)”<sup>44)</sup>

『靈樞·逆順肥瘦』: “무릇 충맥은 …… 그 하행자는 소음의 대락으로 들어간다. …… 그 하행자는 소음경을 따라 삼음경으로 들어간다.(夫衝脈者, …… 其下者, 注少陰之大絡, …… 其下者, 並於少陰之經, 滲三陰.)”<sup>45)</sup>

이상을 종합해보면, 衝脈은 足少陰經과 그 근원이 같으며, 그 流注 노선 역시 足少陰經과 일치한다.

#### 2. 衝脈의 標本

『내경』중에 보이는 몸통 부위 충맥의 유주는 복부 노선과 배부노선 두 가지다.

『靈樞·五音五味』에서 “충맥과 임맥이 모두 胞中에서 일어나 위로 등 안쪽을 타고 올라가는데 經絡之海가 된다. 그 떠서 체표로 드러나는 것은 배꼽 양 옆을 타고 상행하여 인후에서 모이고, 갈라져 입술에 이어진다.(衝脈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背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右, 上行會於咽喉, 別而絡脣口.)”<sup>46)</sup>

2007. p.548.

38)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p.1179.

3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9.

4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67.

4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09.

4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07.

4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13.

4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67.

4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89.



라고 하여, 총맥에는 척추뼈 안쪽을 따라 올라가는 배부 노선과 배꼽 양옆을 끼고 올라가는 복부 노선이 있다고 했다. 앞에서 언급한 『素問·骨空論』과 『素問·氣府論』도 복부노선을 설명한 것이다. 『靈樞·歲露論』에서 “入脊內，注於伏衝之脈”<sup>47)</sup>이라 한 것은 衝脈의 배부노선을 가리킨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장경악과 양상선의 견해가 참고할 만하다.

張景岳: “총맥은 기가에서 일어나 족소음경을 따라 흘러 횡골, 대혈 등 11혈에서 모이고, 배꼽을 끼고 상행하여 흉중에 이르러 흩어진다. 이는 총맥이 인체의 앞쪽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소음맥은 허벅지 안쪽 후방으로 올라가 척추를 관통하여 腎에 속하며, 총맥 역시 척추 안쪽으로 들어가 伏衝脈이 된다. 따라서 총맥이 인체의 뒤쪽으로 흐르는 것도 역시 소음경을 따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衝脈起於氣街，並少陰之經，會於橫骨大赫等十一穴，伏膺上行，至胸中而散，此言衝脈之前行者也。然少陰之脈，上股內後廉，貫脊屬腎，衝脈亦入脊內爲伏衝之脈，然則衝脈之後行者，當亦並少陰無疑也。)”<sup>48)</sup>

楊上善: “임맥과 총맥은 胞中에서 일어나 두 길로 나뉜다. 한 길은 뒤쪽으로 행하는데 안으로 척추 안쪽에 붙어 올라가고, 다른 한 길은 앞쪽으로 행하는데 밖으로 드러나 복부를 따라 올라가 위로 唇口에 이른다.(任衝二脈，從胞中起，分爲二道，一道後行，內著脊裏而上，一道前行，浮外循腹，上絡唇口也。)”<sup>49)</sup>

장경악과 양상선은 복부로 흐르는 것을 총맥의 “전행자”라 하고 배부로 흐르는 것을 “후행자”라 하였고, 특히 장경악은 총맥의 진행, 후행이 모두 족소음신경과 병행한다고 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족소음신경의 노선

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혼재하면서 총맥의 노선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족소음신경이 배부로 흐른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복부의 총맥 노선은 소음이 아닌 다른 경맥과 병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족양명경과 병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족소음신경이 복부로도 흐른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족소음경과 병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衝脈의 “並陽明經”，“並少陰經” 문제는 足少陰腎經의 체간부 유주 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부 노선과 배부 노선은 어떤 관계일까? 논자는 둘 사이의 標本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즉 배부 노선이 원래 총맥의 기가 흐르는 본선이고, 복부 노선은 총맥의 기가 외부로 발현되는 곳을 이은 것이다. 『素問·氣府論』에서 총맥의 복부 노선을 말할 때 “衝脈氣所發者”<sup>50)</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총맥의 기가 외부로 드러나는 곳을 가리킨 것이다. 『靈樞·五音五味』에서 “浮而外者”<sup>51)</sup>라고 한 것도 이를 가리킨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經脈(線)과 經穴(點)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다. 총맥의 경맥은 척추 안쪽으로 깊이 흐르지만, “脈氣所發” 즉 그 기운이 겉으로 드러나는 穴은 복부에 위치한다. 따라서 실제 복부 노선은 총맥의 기가 체표로 발현되는 지점 즉 혈을 이어 놓은 것이지 실제 총맥의 기가 흐르는 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족소음신경의 체간부 유주에 대해 『靈樞·經脈』과 『甲乙經』의 설명이 다른 것도 결국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衝脈의 기는 가까운 背部로 발현되지 않고 腹部로 발현되는가? 이는 배부의 강력한 태양의 기세에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지부에서는 정상적으로 내후방으로 발현되어 경맥과 경혈의 노선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몸통에서는 척추뼈가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4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82.

4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38.

48) 張介賓 著, 이남구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356.

49)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대성문화사, 1986, p.113.

5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07.

5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82.

### 3. 衝脈과 陽明經

“**陽明經**”설이 『난경』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內經』에 그 실마리가 있다. 『素問·痿論』에서 양명맥과 충맥이 함께 氣街에서 만나 宗筋을 영양하는데, 陽明이 중심이 된다고 했다.<sup>52)</sup> 이에 대해 왕빙은

“**황골의 상하로 배꼽 양옆에 수직으로 선 근육이 바로 종근이다. 衝脈은 복부를 따라 배꼽을 끼고 양 옆으로 5푼 떨어져 상행한다. 종근은 복부 중앙에 세로로 서있다. 그래서 양명과 함께 종근에서 합한다고 말한 것이다.**(橫骨上下齊兩傍豎筋, 正宗筋也. 衝脈, 循腹俠齊傍各同身寸之五分而上, 陽明脈, 亦俠齊傍各同身寸之一寸五分而上, 宗筋脈於中(新校正云詳宗筋脈於中, 一作宗筋縱於中), 故云與陽明合於宗筋也)”

“**종근은 배꼽을 끼고 아래로 황골에 합한다. 양명이 그 바깥쪽을 보좌하고 충맥이 그 안에 위치한다. 그래서 기가에서 모이는데 양명이 그 중심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宗筋俠齊, 下合於橫骨, 陽明輔其外, 衝脈居其中, 故云會於氣街而陽明爲之長也.)”<sup>53)</sup>

라고 하여, 배꼽을 끼고 수직으로 서 있는 근이 종근인데, 종근을 따라 안쪽으로는 충맥이 흐르고 밖으로는 양명맥이 衝脈을 보좌하면서 흐르다가 기가에서 만난다고 했다.

장경약의 설명은 좀더 자세하다.

“**충맥은 기가에서 일어나 소음경을 따라서 배꼽을 끼고 상행한다. 양명맥 역시 배꼽을 끼고 옆으로 2촌 떨어져 하행한다. 따라서 모두 종근에서 만난다. 종근은 前陰에서 모이는데, 전음은 족삼음, 족양명, 족소양, 충맥, 임맥, 독맥, 교맥 아홉 개의 맥이 만나는 곳이다. 아홉 개의 맥 중에 양명은 五藏六府之海이며, 충맥은 經脈之海이다. 이 一陰과 一陽이 그 사이를 다스리므로 음양이 종근이 모이는 곳을 다스린**

다고 말한 것이다. 기가에서 모인다고 했는데, 기가는 양명의 正脈이다. 그러므로 양명이 홀로 그 主長이 된다.(衝脈起於氣街, 並少陰之經, 夾臍上行, 陽明脈亦夾臍旁, 去中行二寸下行, 故皆會於宗筋. 宗筋聚於前陰, 前陰者, 足之三陰陽明少陽, 及衝任督蹻, 九脈之所會也, 九者之中, 則陽明爲五藏六府之海, 衝爲經脈之海, 此一陰一陽, 總乎其間, 故曰陰陽總宗筋之會也 會於氣街者, 氣街爲陽明之正脈, 故陽明獨爲之長.)”<sup>54)</sup>

위의 내용을 보면 분명 衝脈과 足陽明經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內經』에서는 충맥이 足陽明經과 종근을 따라 떨어져 나란히 흐르다가 종근이 모이는 전음부위에서 만난다고 했지, 『난경』에서처럼 족양명경과 함께 흐른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충맥이 족양명경과 만나며 양명맥이 중심이 된다고 한 것은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素問·痿論』에서 “**陽明爲之長, 皆屬於帶脈, 而絡於督脈**”<sup>55)</sup>이라 한 것을 보면, 양명맥이 후천의 근원으로서 충맥은 물론이고 대맥, 독맥 등에 기혈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靈樞·海論』에서도 “**衝脈者, 爲十二經之海, 其輸上在於大杼, 下出於巨虛之上下廉**”<sup>56)</sup>라고 했는데, 상거허와 하거허는 모두 족양명경에 속한다. 이처럼 『내경』에서 衝脈과 足陽明經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 유주가 일치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 衝脈이 “**五藏六府之海**”, “**經脈之海**”라는 기능에 부합하려면 少陰經 보다는 陽明經과 병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陽明經이 “**五藏六府之海**”라고 하는 것은 후천의 水穀氣血之海를 가리킨 것이며<sup>57)</sup>, 충맥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5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66. “陽明者, 五藏六府之海, 主潤宗筋, 宗筋主束骨而利機關也. 衝脈者, 經脈之海也, 主滲灌谿谷, 與陽明合於宗筋. 陰陽總宗筋之會, 會於氣街, 而陽明爲之長, 皆屬於帶脈, 而絡於督脈.”

53)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49.

54) 張介賓 著. 李杲 註.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666.

5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66.

5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74.

5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46. “胃者, 五藏六府之海也, 水穀皆入於胃, 五藏六府, 皆稟氣於胃.” p.261. “胃者, 水穀氣血之海也”;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

『내경』에서는 衝脈이 關元, 胞中, 腎下에서 起始하여 위로 곧장 올라간다고 했다.<sup>58)</sup> 여기서 關元, 胞中, 腎下 등은 표현이 다를 뿐 사실은 같은 곳을 가리킨다. 『難經』의 표현을 빌리자면 “腎間動氣”라고 말할 수 있다. 『내경』에서는 “腎間動氣”가 生氣의 근원으로 五臟六腑와 十二經脈의 근본이라고 했다.<sup>59)</sup> 衝脈이 이처럼 “腎間動氣”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內經』에서 衝脈을 “十二經之海”(『靈樞·海論』), “經脈之海”(『素問·痿論』), “五臟六腑之海”(『靈樞·逆順肥瘦』), “經絡之海”(『靈樞·五音五味』) 라고 하는 것이다. 또 胞宮 자체가 精血이 성한 곳이기도 하다.

#### IV.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衝맥의 북부 순행노선에 대해서 “並少陰經說”, “並陽明經說”, “절충설” 세 가지가 있다.
2. 衝脈은 足少陰經과 그 근원이 같으며, 그 流注노선 역시 足少陰經과 일치한다.
3. 『내경』 중에 보이는 몸통 부위 衝맥의 유주는 북부노선과 배부노선 두 가지다. 두 노선 사이의 관계는 標本의 관계 또는 經穴(點)과 經脈(線)의 관계이다.
4. 『내경』에서 衝脈과 足陽明經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 유주가 일치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 參考文獻

- 研究院 出版部. 1985. p.42. “胃者水穀之海, 六腑之大源也.”
- 5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45. “衝脈起於關元, 隨腹直上.”;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67. “衝脈者, 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 起於腎下” p.282. “衝脈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背裏.”
- 59) 윤창열, 김용진 편저. 난경연구집성.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308. “十二經脈者, 皆係於生氣之原. 所謂生氣之原者, 謂十二經之根本也, 謂腎間動氣也. 此五臟六腑之本, 十二經脈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一名守邪之神.” p.883. “臍下腎間動氣, 人之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 故名曰原.”

<논문>

1. 손광락. 經脈體系의 形成과 發展에 關한 文獻的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1999. p.86, 87, 100, 101.
2. 임진식. 음양이합론의 삼음삼양과 개합추. 대한원전외사학회지. 1998. 11(2). pp.15-26.
3. 丁彰炫. 삼음삼양의 개합추에 대한 신지견-“厥陰爲樞, 少陰爲合”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2). pp.275-279.

<단행본>

1. 鄧良月 主編. 中國經絡文獻通監. 青島. 青島出版社. 1993. p.568, 571, 572, 573, 575.
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湖南.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193, 258.
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대성문화사. 1986. p.79, 113, 115.
4.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p.1179.
5. 윤창열, 김용진 편저. 난경연구집성.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308, 532, 548, 883.
6. 李時珍 著. 柳長華 主編. 奇經八脈考. 李時珍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36.
7. 張介賓 著. 李時珍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268, 356, 666.
8. 趙佶 編.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184.
9. 陣夢雷, 蔡廷錫 等 原編著. 圖書集成醫部全錄二 黃帝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79.
10. 秦越人 撰. 王九思 等 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pp.163-164.
1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9, 42, 145, 166, 207, 209, 213.
1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81, 103, 174, 189, 246, 261, 267, 282, 338.
13. 皇甫謐 撰. 黃帝鍼灸甲乙經(欽定四庫全書·子

- 部·醫家類五).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544.
14. 山東中醫學院 校釋. 鍼灸甲乙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257. pp.391-393, 407-409.
15. 황용상 저. 박현국 외 2인 공역. 중국침구학 술사대강.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426, 429, 431, 466.
16. 林億, 高保衡.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49, 319, 327.
17. 전국한의과대학 침구경락학교실 편저. 침구학(상). 서울. 집문당. 1991. p.533.